



女行

여자 여행

부산편
예쁜 동네길
너랑 걷고 싶은

Issue
No.01

이 길 끝에 핫스팟_📍

여름휴가는 멀었는데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진다.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다 보니 언제 동네 산책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지난 여행사진을 보는 것도 물릴 무렵,

뜻밖의 휴일(창립기념일)이 찾아왔다.

평일이라는 꼴 같은 휴일! 서울에 있기엔 너무도 억울하고

해외여행을 가자니 부담스러워 대한민국에서 멀리 갈 수 있는

곳 중 한 곳인 부산으로 떠나보려 한다.

평일이라 친구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옆자리 동료에게

말을 건넨다.

“너랑 걷고 싶은 예쁜 동네가 있어.
나랑 여행 안갈래?”

여자 여행

B U S A N

일정

[1박 2일]

출발 > 초량동 > 신창동 > 중동 > 민락동 > 우리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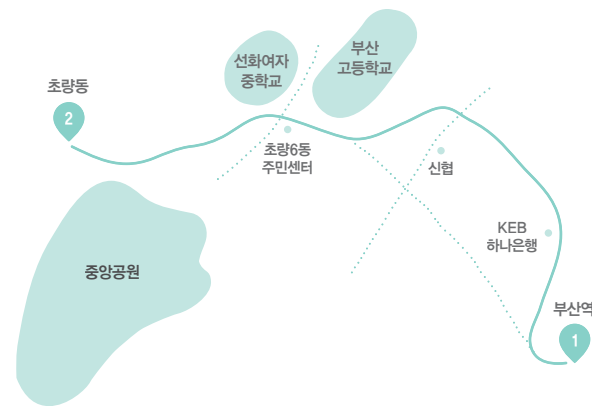
1 일 차

각자의 집에서 출발하여 부산에서 만나기로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10분.
 서울에서 2호선으로 한 바퀴 도는 시간에
 시간을 조금 더 보태어 우리는 부산으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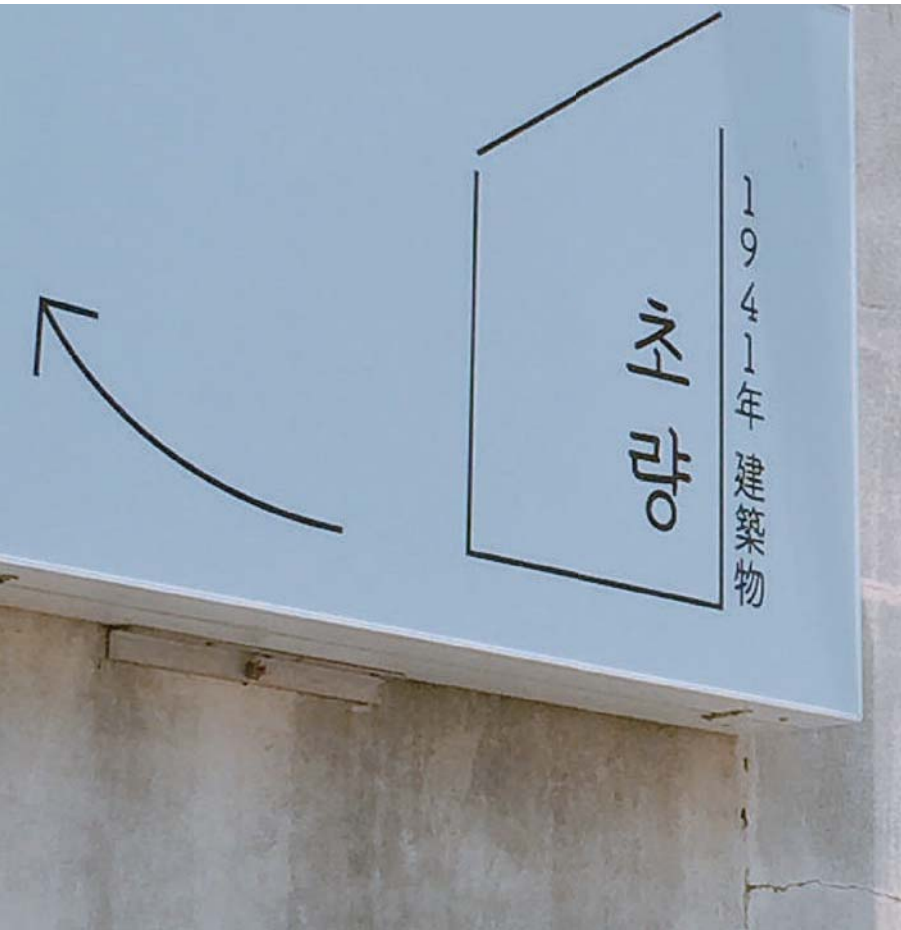
| 부산 도착시각, 오전 11시 20분 |

부산역은 초량동에 위치하고 있다.
 풀밭의 길목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부산역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동네이다.
 이곳에는 차이나타운, 이바구공작소, 일본식 가옥등 볼거리가 많이 있다.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333번 버스를 탈수도 있고,
 택시를 타도 기본료만 나오니 부담스럽지 않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올라가 걸어서 내려오는 방법을 선택했다.



너희 동네로!
 낯설지만 아름다운
 정겨운 나의 동네가 아닌
 매일 보던



택시로 고작 5분 정도의 거리를
 왔을 뿐인데 멀리 바다가 보인다.
 드디어 부산에 왔다고 소리지르고 싶은 마음이다.
 금수사라는 절 옆에 예쁜 카페가 자리잡고 있다.



이 길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코스를 선택했는데,
 부산이라는 동네의 가장 매력은

곳곳에 주인장들의 손때가
 물씬 느껴진다는 것이다.





* 금수사 앞, 카페〈초량〉 전경



빽빽하게 자리잡은 건물들 사이로
색색들이 자기만의 빛을 뿜내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 어색하지 않고
예쁘기만 하다고 말하고 싶다.
저 언덕에는 누가 살까 상상하면서 조금씩 길을 걸었다.
이바구길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막걸리도 한 잔 하길 바란다.

40여분의 짧은 산책을 끝마칠 때쯤 나타나는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 있다.

백제병원이라고 불리었던 건물로 1922년 건립되었으며
2012년에 부산광역시가 시정한 근대건조물로 등록되어 있다.
재일동포 최용해가 건립한 지하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이었다던 이 건물은
현재 1층만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고, 똑같이 만들기도 힘든
이 건물의 느낌은 여행자로 하여금
마음을 매우 들뜨게 해주었다.

마침 평일이라 사람들이 붐비지 않았고,
음료를 주문하고 1층을 모두 돌아보았을 무렵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인생사진을 찍고 싶다면 이 곳을 추천하고 싶다.

초량동 길 끝에는
브라운핸즈백제가 있다고 해야겠다



다시 부산역으로 나와 40번 버스를 타면 국제시장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걸어야 할 것에 대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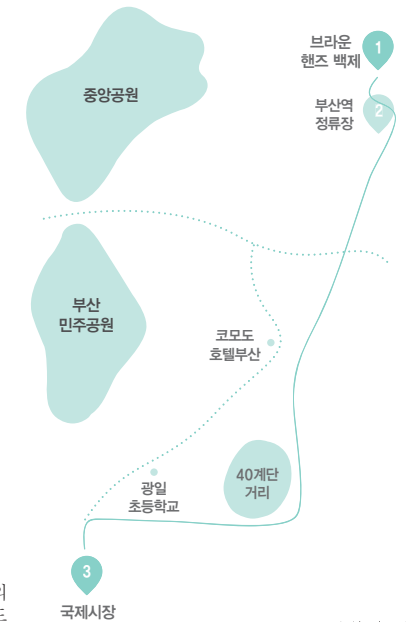
택시비는 약 4천원이며 빠르고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창동

신창동이라고 하면 여행자들은 모르지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어린이도 아는
그 곳! 할 것이다.

영화에도 나오고 SNS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어색하지도 않다.
여행이라면 모름지기 먹어야 한다.
국제시장에서 맛있는 먹을 것을 찾으러
떠났지만 예상하지 못한 예쁨에 또 반해버렸다.
이렇게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일까?

| 국제시장은 모두 총 6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먹을거리 볼거리 살거리들이 널려있다.
국제시장이 처음 생겼을 무렵에는 도깨기시장으로
불렸을 만큼 싸고 좋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



* '부산역'에서 '국제시장'까지의
버스노선 지도

세 발자국.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매우 많다.
그만큼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 코스인 것이다.

우리도 현지인들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몇 가지 골라보았다.
바닥에 널려있는 것들은 거의 다 천원 상품으로
일본에서 컨테이너로 많이 들여오는 듯 하다.

그래서 구제시장이 발달한 것일까?

서울에서는 동묘시장에 가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만큼 상권이 크지 않으니 제대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루 종일도 재미있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산에서 꼭 먹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인 당면.
당면을 비빔국수처럼 비벼서 먹는 것인데
떡볶이 어묵이랑 먹으면 그 맛이 두 배가 된다.
혼자는 이것들을 다 먹을 수 없어 아쉽고,
셋이서는 이 양이 부족하다.

둘이오면 만원으로 충분하니 여행은
두 명이 해야 좋지 않을까?



* '국제시장'에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의 버스노선 지도

허기짐까지 모두 사라졌다면 숙소에 집을 풀어야 할 때이다.

숙소는 해운대 앞에 잡았는데, 그 이유는 밤에도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정확히 중1동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중1동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버스를 타면 1시간 10분 정도, 택시를 타면 4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내 입은 버스 타고 동네 구경이라고 말하고, 마음은 여행 경비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몇 키로나 걸었는지 다리가 땡땡해졌다. 버스 맨 뒷자리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꾸벅꾸벅 졸면서 간다.

얼마 만에 꾸벅꾸벅 좋아하는 걸까? 감탄하면서.

| 우리가 탄 40번 버스는 해운대라는 지명이 아닌 '운촌'이라는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 운촌에서 내리면 해운대에 있는 더베이101 또는 동백섬까지 5분만에 걸어갈 수 있으니 꾸벅꾸벅 즐더라도 귀는 종긋 세우면서 좋아야 한다 |

여섯 발자국.

해가 저물어 간다

호텔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하게 선택한 여행지인 만큼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예약했다. 주로 이용하게 되는 어플은 '데일리호텔'로 친구를 추천하면 5,000원 할인 쿠폰까지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객실 안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해운대 그랜드호텔에 투숙했다. 싱글 침대 2개에 Sea View로 하여 15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예약했으니 성공한 숙소 예약인 듯 하다!





간단하게 짐을 풀고 날이 어둑해질 무렵
해운대의 꽃이라는 더베이 101에 갔다.

! 마린시티 건너편!

더베이 101은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즐기면서 선착장, 바다, 동백공을 곁에 두고
있어 야경이 매우 예쁜 곳으로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우리 둘은 저녁을 겸했기 때문에 피자 하나에
쉬림프 & 감자칩, 맥주 2잔을 시켰다.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맛보다는 풍경으로 먹을 만하다.

저녁을
 든든히
 먹었다면
 당연히
 해운대
 해변을
 산책해야지!



우리가 갔던 시기에는 모래로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래사장은 매우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발만 담그기에는 너무도 예쁜 날이었다.
 연인과 함께 왔어도 너무 좋겠지만 동료와 함께 오니
 우리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해운대에 있는 호텔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 바로 포장마차거리이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나고 이 포장마차 거리에서 소주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부터 너무도 궁금했던 그 길! 요즘 서울에는 포장마차가 많이 사라졌고, 바닷바람 맞으며 해산물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귀한 장소이다. 이 곳에서의 한잔이 너무도 즐거웠다.

해산물은 한 종류당 2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은 아니다. 또한 키크랩 거리로 유명하기도 한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 해산물로 만족하기로 했다.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잘 하여 4만원에 4종을 맛보았다.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아서 가능했는데, 여름이나 축제가 시작되면 사람들로 앉을 자리도 없다고 하니 자금사정을 넉넉히 준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카드도 사용 가능하니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취했다면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마무리 맥주를 사서 호텔에 가져가도 좋겠다. 조용한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으니까 말이다.





민락동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한 동네는 민락동이다. 민락동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동네로 해운대가 호텔과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면 광안리는 각각의 개인들이 만들어 가는 상점이나 대형 커피숍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광안리 해수욕장을 근처로 한 바퀴 돌기에도 큰 동네가 아니라서 동네 구경도 하고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여겨진다. |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미광화랑이라는 곳이었다. 미광화랑은 김기봉 대표님이 계신 곳으로 개인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얼마 전 화랑에 대선 투표소가 설치된 곳으로 뉴스

기사가 실려 알게 된 곳으로 부산에서 이곳을 꼭 보고 싶었다.

전시는 2달 정도로 매번 작가가 바뀌는데 대형 전시 못지 않게 내부 전시가 잘 이루어져 있어 너무 좋았다. 전시도록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둘러볼 만 한 곳이라고 여겨진다.

미광화랑을 기점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양 각색의 개인상점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조금 늦게 문을 여는 듯 하다. 우리는 동네 산책이 그 목적이었고 모든 상점을 둘러보기엔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그 동네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2 일 차

아침이 밝았다.

느긋하게 일어나 씻고, 아침점 점심을 먹기로 했다. 어젯밤 과음을 했다면 시원한 북국지리나 대구탕을 먹어도 좋겠지만 우리는 브런치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 여자 둘이서는 해장국보다는 브런치 아닐까?

키치니토는 지하철로 중동역에 가까우며, 이마트 부근에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며, 오전 10시 오픈이니 호텔에서 나와 조식으로 먹어도 좋은 곳이라고 여겨진다. 여러가지가 함께 있는 세트메뉴를 먹었는데 3명이서는 딱 맞고, 2명이서는 조금 많은 양이었다. 커피도 리필 가능하니 마음껏 이야기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주말에는 웨이팅이 많다고 하니 사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온 동네를 다니다보면 내가 이런 동네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한다.

항상 북적북적하고 꼭 막힌 도시에 있다가도 내가 사는 동네의 익숙함을 느끼면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이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면 더 멋진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여행자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모습만 보았을 테지만 말이다.

이 길의 끝은 우리가 처음 내렸던 그 곳이었다. 이제 부산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3시에 타려는 KTX를 타려면 2시쯤에는 출발해야 하고, 현재 시각이 1시쯤이었으므로 시원한

음료 한잔 마시고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방문하게 된 곳은 가구와 음료를 함께 파는 곳이었는데, 음료가 맛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장 밖에 있는 작은 공간이 너무도 매력적인 곳이었다.

가구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개인 상점이라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차분한 느낌이었으며, 정원이 매우 잘 가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층에는 가구가 더 많이 전시되어 있어 가구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즐거운 공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인 것이다.
짧은 1박 2일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웃고 걸었는지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돌아가는 기차에서 내가 놓쳤던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 보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우리 인생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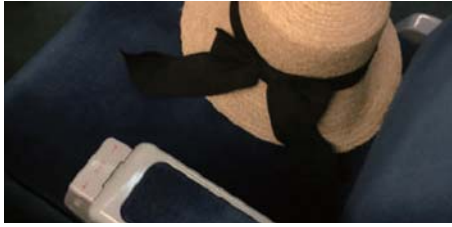
BEHIND

비하인드

Behind.1

KTX를 탑승하였는데 옆자리에 주인 없는 007가방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방의 주인은 보이지 않고, 혼자 출발하게 되는 낯선 여행이라 그런지 괜시리 두려움이 느껴졌다.

열차가 출발하자 가방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을 보니 안심되어 폭 잠에들 수 있었다.



Behind.2

2016년 12월 SRT 열차가 개통되었다. 수서에서 출발하여 경부, 호남지역만 가는 열차이다. 서울역이나 다른 기차역이면 사람이라면 도심에 있는 SRT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일행과 함께 KTX를 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Behind.3

부산 1박2일의 여행 중 첫 번째 목적지는 초량동의 <카페 초량> 이었다. 우유카페로 유명한 곳인데 경치나 그 풍경이 아름답고 맛도 좋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약속된 날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또한 둘째 날 찾아 갔던 광안리의 네살차이라는 카페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늦은 오픈을 하였다. 개인 영업장을 찾을 때에는 사전에 전화하여 영업을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듯 하다.



Behind.4

여행 끝에 돌아오는 길도 SRT를 이용했다. 옆 자리 앉으신 분은 60대의 어르신 이셨는데 SRT를 처음 이용해보시는 듯 나에게 몇 가지를 여쭙보셨다. 대답을 해드리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고맙다며 과자 하나를 내미셨다.

생각해보니 나는 초등학교 때에도 기차를 타면 우유나 과자를 많이 받는 어린이였다. 혼자 기차를 타고 태백을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어르신들 눈에는 신기하고 걱정 가득한 어린이로 보였나 보다.

오랜만에 기차를 타기도 했고, 과자도 받았더니 그때 그 생각이 떠올라 기분이 좋았다.



여행 Tip 및 어플

코레일 어플 활용

코레일은 어플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승차권 예매,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거나,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다. 간단한 음료와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으니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용하기엔 좋은 곳이라 여겨진다.

코레일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은 승차이용 전에만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하며, 요즘은 테마 열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사전에 예약한다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데일리 호텔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면 데일리호텔이나 다른 어플을 사용해서 예약해도 좋을 것 같다. 데일리호텔은 친구를 추가하면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추가 할인쿠폰도 준다.

또한 날짜가 급박할 수록 핫딜 상품이 많이 등록되기 때문에 호텔을 저렴하게 예약하고 싶다면 안성맞춤일 것이다.



책을 보며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열차에 오르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다. 너무 큰 책은 무겁고 짐이 되니 민음사에서 나온 썬살문고 시리즈를 추천한다. 가격대도 5천원대에서 8천원대로 저렴한 편이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작고 가볍기로 유명하다. 내용 또한 가벼운 이야기부터 단편소설, 에세이 등 다양하니 여행자에게는 최적화된 책이라 생각된다.



지출 내역

경비	KTX 왕복	119,600	숙소	해운대 그랜드호텔	142,000
	SRT 왕복	105,400			
택시 및 교통비	부산역 > 초량동	3,000	음식	브라운핸즈 백제	19,800
	부산역 > 국제시장	4,000		밀크티, 자몽에이드, 티라미슈	
	해운대 > 민락동	6,200		국제시장 분식	10,000
	민락동 > 부산역	10,900		더베이 101	47,500
	+ 버스교통비	3,000		포장마차거리	45,000
				해산물 4종, 청하1병	
				키치니토(브런치)	42,000
				민락동 카페	9,600

총 합계 565,000 원 | 1인당 경비 284,000 원